

영화 속에 내재된 이중적 의미 : 영화 “향수”를 중심으로

Double Meaning Inherent in the Film : focused on the Movie "Perfume"

김성훈
한서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Seong-Hoon Kim(artkim@hanseo.ac.kr)

요약

영화 속에 내재된 이중적 의미는 문학에서 말하는 중의법(重義法)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중의법이란 어느 한 단어나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때를 말한다. 영화에서도 한 인물의 행동이나 소도구 혹은 의상이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관객과 대면한다.

프랑스의 유명 감독 프랑수아 오종은 “감독은 언제나 자기가 만든 최신작에 역행하는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 고 했다. 이 말의 의미는 영화는 개혁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감독의 철학이다. 영화가 금기를 깨야한다는 것은 사실 영화정신의 밑바탕이기도 하다. 영화는 항상 금기에 도전했고 진보를 선도했다. 서양 영화의 금기는 우리나라의 도덕과 윤리수준과는 좀 더 치열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들의 금기는 기독교의 신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이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갑론을박을 끌어내기에 충분했다. 본 연구에서 톰 튀크베어 감독의 영화 “향수”를 텍스트로 선택하여 이 영화 속의 고도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이중적 내용을 파헤쳐 관객을 교묘히 기만한 서양의 금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 중심어 : | 이중적 의미 | 향수 | 기독교 | 금기 | 신성 |

Abstract

Double meaning inherent in the film is interpreted in the same context as it's called ambiguity in the literature. Ambiguity means that one word or one sentence can be interpreted in two or more meanings. In the movie, one behavior of a character, a prop or a costume with two or more meanings faces the audience. A famous French director Francois Ozon said "The director has always made movie contrary to his/her latest movie." This means that the film should seek to reform and it's his philosophy about the movie. Actually, it's the film's basis that a movie breaks the taboo. The film has always challenged taboos and led the progressivism. Taboos of western films are more intense than our country's moral and ethical level. Their taboos are to deny the sacred and legitimacy of Christianity. Particularly, as many people talk about the film to deny the divinity of Jesus Christ, it's sufficient to elicit an argument pro and con. This study is to choose the movie "Perfume" of director Tom Tykwer as a text, examine the highly elaborate and strategic double meaning in the movie and analyze the western taboos to deceive the audience skillfully.

■ keyword : | Double Meaning | Perfume | Christianity | Taboo | Divinity |

* 본 연구는 2010년도 한서대학교 교비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101230-006

심사완료일 : 2011년 01월 13일

접수일자 : 2010년 12월 30일

교신저자 : 김성훈, e-mail :artkim@hanseo.ac.kr

I. 서론

서구사상에는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다. 하나는 그리스·로마의 사상인 헬레니즘(Hellenism),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교 사상인 헤브라이즘(Hebraism)이다. 이 두 흐름은 서로 화합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하면서 서구사회에 문화를 꽃피워 왔다[1].

“헬레니즘의 최고 관념을 사물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며, 헤브라이즘의 최고 관념은 선행과 복종이다.”라는 19세기 영국의 문명 비평가 매슈 아놀드[2]의 말은 그 양대 원류의 성격을 간명하게 포착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역사적 사조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에 걸쳐 두루 영향을 미쳤다. 헬레니즘은 널리 문화적인 용어로 사용될 경우 그리스 문화 일반과 특질인 개방적, 합리적 요소를 계승한 후세의 문화 제 현상을 말한다. 이 경우는 유대교나 예수교 및 그 특질인 내성적, 신앙적 요소를 계승한 문화 제 현상을 가리키는 헤브라이즘과 대비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서양의 역사가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사조로 인하여 예술에도 극명하게 두 가지 사조가 표현되어 있다. 영화도 이 두 가지 사조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사조의 원천을 들여다보면 결국 금기를 파괴하는 쾌감을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은 언제나 자기가 만든 최신작에 역행하는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

프랑스의 유명 감독 프랑소아 오종(Francois Ozon)[3]의 말이다. 영화는 개혁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이다. 그는 늘 새로움에 도전했으며 그가 말한 역행은 사회적 ‘금기’를 깨면서 시작됐다. 보통 사람들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을 설정하면서 때론 가혹하게, 때론 불편하게 다가갔다. 그에게 영화란 금기를 해부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다.

영화가 금기를 깨야한다는 것은 사실 영화정신의 밑바탕이기도 하다. 영화는 항상 금기에 도전했고 진보를 선도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대중도 서서히 변해갔다.

지금은 흔해 빠진 ‘노출’은 20세기 중반 영화계가 폐쇄적인 성(性) 담론에 대해 도전장을 내밀면서 시작됐다.

영화가 이렇듯 단순한 예술을 넘어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전제는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이상용 영화평론가는 “영화는 젊은 세대와 함께 태동했다. 영화는 이전에 없었던 문화적 코드를 통해 저항을 해나갔다. 이게 영화의 기본 정신”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영화 속의 금기는 도덕과 윤리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사람들의 고유정서를 침범하고 들어오는 정도의 이야기다. 굳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들이댈 요소는 많지 않다.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나 신승수 감독의 “할렐루야” 같은 영화가 국내의 기독교인들을 불편하게 만든 영화이나 이 영화를 상영을 금지해야 한다거나 불매운동을 벌리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서양영화의 금기는 우리나라의 도덕과 윤리 수준과는 좀 더 치열한 부분이 존재한다. 그들의 금기는 기독교의 신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이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감론을박을 끌어내기에 충분했다. 론 하워드 감독의 “다빈치코드”와 “천사와 악마”는 노골적인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영화이다. “다빈치코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으로 묘사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와의 사이에서 후세를 탄생시켰다는 허구에 가득 찬 상상력으로 세인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으며 기독교인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천사와 악마”에서는 바티칸의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를 진행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역시 신성을 지키기 위해 인간들이 허구로 신화창조를 하여 무고한 인명이 죽어도 신성만을 유지 한다면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 하여 영혼 구원이 아닌 말살이라는 아이러니를 지니고 있는 것이 종교이며 그 역지가 신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처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두 사조 사이의 금기를 길항작용하며 금기에 대한 반항적 영화가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다. 여기에 두 사조에 가담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여 흥미와 예술성으로 포장한 영화들이 있다. 이런 영화들은 영화의 완성미가 뛰어나며 일반관객들에게 이중적인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영상미를

탁월하게 제공하는 재능을 발휘한다. 이런 종류의 영화는 특정한 인물들에게 도전적으로 문제를 던지며 빠져나갈 변명거리를 준비한다. 본 연구에서 톰 튀크베어 감독의 영화 “향수”를 텍스트로 선택하여 이 영화의 고도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이중적 의미 선택으로 관객을 기만하듯 서양의 금기를 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영화를 분석하여 숨겨진 코드를 일반관객들에게 알리며 공유하여 문제의식을 공동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

II. 원작과 영화와의 시각차

1. 톰 튀크베어와 파트릭 쥐스킨트

톰 튀크베어[4] 감독은 파트릭 쥐스킨트[5]의 “향수” 원작의 줄거리와 사건을 거의 그대로 옮겨왔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원작에 가깝게 영화화 했다. 영화는 소설의 서술방식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소설의 문장 그대로 인용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의 영화는 “전적으로 순수한 문학영화”[6]로 간주되며 지나친 원작 충실성 때문에 영화적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7].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영화만의 고집스러운 형식과 캐릭터의 변형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쥐스킨트의 소설에서는 주인공의 이야기 구조가 탄생에서부터 죽음 까지 연대기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것은 성장 발전해가는 예술가나 천재의 전기라고 하는 고전적 형식을 취한 것이다[8]. 그래서 소설은 문학계에서 “반발전소설”[9]이라 불리고 있다. 그러나 영화는 관객의 시선을 끝 극적 사건으로부터 출발한다. 바로 주인공 그루누이의 처형장면으로 시작해서 그의 탄생 장면으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처형장면에 이르는 주인공의 삶을 추적해 간다.

여기에서 튀크베어와 쥐스킨트의 시각차를 정리해 보도록 하자.

2. 두 작가의 시각차

1. 앞서 서술한 것처럼 쥐스킨트는 이야기를 연대기적으로 풀었고, 튀크베어는 극적사건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둘 다 3인칭 전지적 화자로서 나레이션을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한다.

2. 원작에서는 그루누이의 출생과 어린 시절을 상세히 묘사하고 그루누이의 천재적인 후각에 대한 이야기와 동료들이 두려운 존재로 그를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나 영화에서는 나레이션을 동반한 몇 가지 행동으로 대신한다.
3. 발디니의 생각과 그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원작에서는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나 영화에서는 삭제되었다.
4. 그루누이가 발디니에게 좋은 향수를 만들어 주자 원작에서는 발디니가 그루누이에게 증류법을 가르쳐 주고 알람빅을 맘껏 쓸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향수의 12가지 에센스와 13번째 이집트 파라오 향수의 전설을 이야기해 준다.
5. 소설에서는 그루누이가 최고의 향수를 제조하기 위하여 25명의 소녀를 살해하는데 처음 향수의 실험을 빈민구호 병원에서 폐병으로 죽은 가방 만드는 도제 침대 시트를 사용하고 두 번째는 병어리 여자에게 1프랑을 주고 몸에 유지와 올리브에 적신 헝겊을 붙인 것으로 한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총 16명을 살해하는데 처음 자두 파는 소녀를 우발적으로 살해 한 후 그라스에서 아르필피 부인 집에서 도제로 일하면서 향수제조 실험대상으로 라벤다 농장에서 일하는 소녀하나를 살해하고 창녀 하나를 더 살해 한 후 강아지의 후각 반응으로 향수가 성공했음을 인지한다. 그 후 최고의 향수를 만들기 위해 13명의 소녀를 차례로 살해한다.
6. 원작에서는 폴롱 뒤 캥탈 산 동굴에서 혼자만의 세계에 사로잡혀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후 라 타이아드 에스피냐스 후작과의 생활이 표현되는데 영화에서는 그루누이 자신에게서 냄새가 없음을 알게 되는 것 외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7. 그라스에 도착한 후에 로르 리쉬를 단순한 욕망의 대상으로 원작은 기술하나 영화는 로르 리쉬의 비중을 크게 다루고 있다. 로르 리쉬의 살해 장면을 원작은 자세히 서술하지만 영화에서는 표현하지 않는다.

8. 그루누이의 체포 장면을 원작은 로르 리쉬가 살해 당 한 후 열흘째 되던 날 경비대원의 진술에 의거하여 그루누이는 체포된다. 영화는 숲속에서 로르 리쉬의 엑기스를 정제하고 그동안 만들어 두었던 12명의 소녀 엑기스와 혼합해 최고의 향수를 만든 직후에 순순히 체포된다.
9. 원작에서는 체포 후에 재판을 받고 처형 일을 기다리는 그루누이에 대한 서술이 있지만 영화에서는 앙투안느 리쉬의 물 고문장면과 “이 순간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다.
10. 원작에서는 앙투안느 리쉬가 질풍처럼 달려와 그루누이 품에 안겨“용서 해 다오 내 아들이 나를 용서 해 다오”[10]하는 말을 듣고 그루누이는 기절하는 것으로 묘사 되어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칼을 들고 그루누이를 직접 죽이겠다고 처형대까지 올라온 후에야 “나를 용서해 다오 내 아들이”라는 대사를 하며 품에 안겨 온다.
11. 원작에는 없는 장면으로 영화에서 모티프로 사용된 장면인데 그루누이가 회생시킨 자두 파는 소녀의 영상이다. 영화에서 4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그루누이가 발디니로 부터 13번째의 이집트 전설의 향수 비밀을 듣고 12개의 향수 엑기스를 바라보면서 그 소녀의 모습을 상상한다. 두 번째는 증류법으로는 사람이나 구리, 유리등은 냄새를 잡을 수 없음을 알고 쓰러져 사경을 헤맬 때 소녀의 모습을 상상한다. 세 번째는 풀롱 뒤 캉탈 산 동굴에서 평온히 쉬고 있을 때 자두 파는 소녀의 꿈을 꾸는데 여기에서는 자두 파는 소녀가 바로 눈앞에 있는 그루누이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냄새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암시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처형대 위에서 난교를 벌이는 사람들 사이로 노란 자두 바구니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본 그루누이는 자두 파는 소녀를 생각하고 그 소녀와 상상의 사랑을 나눈다.
12. 원작에는 기절한 그루누이가 깨어나자 그루누이에게 앙투안느 리쉬가 아들이 되어달라고 이야기 한 후 한 집에서 같이 사는 모양새를 이루지만 영화에서는 이 장면이 생략된 채 그루누이는 파리

로 향 한다

13. 원작에는 파리 생자크 거리에 들어선 그루누이를 1767년 6월 25일 새벽 6시로 표현 했고 자정이 지날 때 까지 기다려 이노생 묘지로 가서 마지막을 장식한다. 영화에서는 1766년 6월 25일 밤 11경으로 표현하고 본인이 태어난 오를레앙에 도착해서 최후를 맞는 것으로 되어 있다.

III. 향수 속의 이중 의미 아이콘



그림 1. 생선터미와 아기 그루누이[11]

이 그림은 예수님의 탄생배경인 예루살렘 마구간의 천한 이미지와 기독교를 상징하는 물고기를 합한 이미지이다.



그림 2. 12제자와 사도바울

이집트의 전설의 향수를 13번째 향수로 놓고 그 인물을 기독교의 완성을 이룬 사도바울로 비유하고 12개의 엑기스를 예수님의 12제자로 이미지화 했다.



그림 3. 막달라 마리아

원전에 없는 창녀 1명을 만들어 넣은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다빈치 코드에서는 예수님의 후세를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미지이다.



그림 4. 빌라도 법정

성서에 나오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영화에서는 복합적인 이미지를 쓴 장소이다.



그림 5. 예루살렘 입성 및 성의

예수님의 성의색상을 모방한 그루누이가 나귀가 아닌 마차를 타고 형장에 입성하고 있는 이미지이다.



그림 6. 잡히시던 날

그루누이는 단 한 차례도 도주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순순히 잡힌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이미지를 연출했다.



그림 7. 고난을 받으심

그루누이를 예수님과 동일시하여 물고문을 하고 있

는 이미지이다.



그림 8. 하얀 손수건

그루누이가 던진 손수건에 묻은 향수의 힘으로 사람들이 이성을 잃기 시작하는 이미지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향기를 유형화 시킨 것으로 기독교의 성령을 암시하는 이미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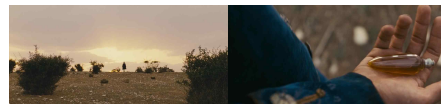


그림 9. 파리로 되돌아 감

그루누이가 본인의 최후를 맞이하기 위해 파리로 돌아간다. 손에는 인간들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력을 상징하는 전설의 13번째 향수를 든 이미지이다.



그림 10. 온몸을 내어줌

사람들에게 온 몸을 내주기 전의 향수를 머리에 붓는 그루누이를 예수님의 희생과 동일시하는 이미지이다.



그림 11. 냄새 없는 그루누이

그루누이의 몸에 전혀 냄새가 없다는 설정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표현한 이미지이다.



그림 12. 이집트 향수이야기

발디니가 그루누이에게 향수의 기본을 설명하면서 전설의 13번째 향수이야기를 하는 이미지이다. 이 이미지는 12제자와 사도바울의 의미로 쓰여 진다.



그림 13. 쌍둥이 자매

예수님의 12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 제자들이다. 이 이미지는 그루누이가 전설의 향수를 만들기 위하여 소녀들의 희생으로 엑기스를 모으기 위한 첫째 두 번째 희생자들로 쌍둥이 자매를 형제 제자로 치환해 표현한 이미지이다.



그림 14. 자두 파는 소녀

마리아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는 소녀로 그루누이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의미 있는 이미지이다.

IV. 이중적 의미 분석

영화 향수는 고도의 치밀하고 전략적인 이중적 의미 선택으로 철저히 기독교를 비하하고 있는 영화이다. 향수에 나오는 그루누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폄하하고 기독교 교리에 도전 한다. 앞서 표현한 아이콘들을 예로 들어 이중적인 의미 분석을 통해 영화 향수가 기독교를 어떻게 폄하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겠다.

1. 물고기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성서에서 마태복음[12]과 누가복음[13]에 자세히 기록되어진 사건이다. 성서에 기록된 아기예수는 하늘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인간들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도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말구유에 누워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물고기는 로마제국이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던 때 신자들이 서로 신원을 확인하고자 사용하던 암호인데 물고기를 암호로 표시 한 것은 물고기를 뜻하는 헬라말이 익튀스(ΙΧΘΥΣ)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Ιηους Χριστος Θεου Υιος Σωτηρ)[14]라는 헬라말의 첫 글자를 합친 것과 같기 때문이다.

- Ιηου s (예수스 / 예수)
- Χριστο s (크리스토스 / 그리스도)
- Θεου (테우 / 하나님의)
- υιο s (휘오스 / 아들)
- σωτηρ (소테르 / 구원자)

영화에서 그루누이의 탄생을 낮고 천한 곳으로 하면서 생선내장과 악취가 나는 곳으로 선택한 것이 그루누이를 예수탄생과 비슷한 맥락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2. 12제자와 사도바울

그루누이가 지상 최대의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시킨 여자들의 숫자를 12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 숫자와 맞추어 결국 향수 때문에 희생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고통 받고 순교했음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더욱이 로르 리쉬를 이집트 전설의 13번째 향수의 완성으로 자리매김해서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 기독교의 산 증인인 사도바울과 동등하게 비유해서 기독교의 완성이

사도바울 인 것처럼 향수의 완성을 로르 리쉬로 표현한 이중적 의미의 기독교 비하표현이다.

3.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서 마리아라는 이름은 여러 곳에서 나온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로 표현되고 어느 곳에서는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로등장이 된다. 영화에서 그루누이가 향수를 시험하기 위해 희생시킨 창녀를 내세움으로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막달라 마리아를 폄하 하는 이중적 표현인 것이다.

4. 빌라도 법정

그루누이 처형장소를 빌라도 법정으로 비유했다. 십자가 형틀과 같이 표현한 이중적 의미이다. 형 집행인이 그루누이 앞에 무릎 꿇고 죄가 없다고 외친다. 여기서 부터는 또 다른 비하를 하고 있다. 형 집행인은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구타하고 침 뱉고 했던 당시의 상황을 역으로 뒤집어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그루누이를 십자가상의 예수님으로 비유해서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그루누이처럼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장면은 그루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두파는 소녀를 생각하는 장면이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아무런 감정도 없이 소녀들을 희생시킨 그루누이의 눈물은 성서에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3번의 눈물 중 3번째 눈물인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신 일을 연상시키고 있는 이중적 의미의 표현이다.

5. 성의 및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셨는데 적어도 메시아라면 마차정도는 타고 입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미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 또한 청색의 의상과 흰 양말은 예수님의 성화에 나타나는 의상 색상을 답습하고 있다.

6. 잡히시던 날

그루누이가 최후의 향수를 마지막으로 배합이 끝난

후 병사들이 그루누이를 체포하는데 그루누이는 향수를 가지고 병사들을 충분히 따돌릴 수도 있었지만 순순히 잡힌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로마병사들에게 잡히시던 날에 고난 받을 것을 아시고도 순순히 잡히셨던 사실을 답습한 이중적인 표현이다.

7. 고난을 받으심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수모와 멸시, 폭행을 당 하셨다. 그 폭행과 고난을 그루누이는 물고문으로 대신하고 있다. 이 고문 장면에서 앙투안느 리쉬의 질문은 “왜 죽었나?”라는 질문이었고 그루누이 대답은 “그녀가 필요했다”라는 짧은 대답이다. 딸이 죽임을 당한 후에 왜 죽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할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답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대답을 패러디 한 것이다. 또 리쉬의 대사에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날을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라”[15]하신 말씀을 “이 순간을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성스러운 기독교 의식의 한 장면을 폄하 하고 있다.

8. 하얀 손수건

그루누이가 처형장에서 향수를 적신 손수건으로 군중들을 좌지우지 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은 하얀 손수건을 보이지 않는 향기를 눈에 보이는 유형화로 표현한 것이다. 하얀 손수건을 성령과 예수님의 능력에 비유해서 성령의 물결로 많은 사람들의 죄가 사해 지는 것을 이성을 잃고 동물적 본능에 충실한 행위로 표현했고 또 예수님이 진정으로 능력이 있으셨다면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과 멸시를 당하지 않고도 인류를 그루누이처럼 좌지우지 하여 구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조롱 섞인 이중적인 표현으로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9. 파리로 되돌아 감

그루누이가 그라스에서 파리로 돌아가 최후를 맞는 장면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이미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패러디한 이중적 표현이다.

특히 이 장면은 나레이션을 통하여 그루누이가 본인의 마음에 따라 세상의 왕이나 권력자 들이나 또 교황을 통하여 본인을 메시아로 선포하도록 할 수 있다고 표현한다. 더욱이 그루누이를 예수님으로 치환한 나레이션 중에 그라스로 들어서는 그루누이에게 하나님이 미소 짓는 것 같았다 라는 표현은 그루누이를 예수님으로 치환하여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10. 온몸을 내어줌

파리로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 몸을 내어주고 그루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시고 세상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몸을 내어 주신 것을 패러디해서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그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몸을 내어준들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세상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조롱으로 기독교 신앙에 절대적인 반대이사 표시를 한 것이다.

11. 냄새 없는 그루누이

냄새가 전혀 없는 그루누이를 흠 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표현 한 것이다. 그루누이가 혼자만의 세계에 살며 외로움과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16]고 말씀하신 것을 패러디한 이중적 표현이다.

12. 이집트 향수이야기

이 이야기는 발디니가 그루누이에게 향수의 기본을 설명하면서 13번째 전설의 향수를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지금도 예수님이 이집트의 마법사들에게 마법을 전수 받았다고 하고 인도에서 부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떠돈다. 이집트는 예수님이 아기 시절에 헤롯의 눈을 피해 피난해 있었던 장소로 기록되어 있다. 이 이집트의 13번째 전설의 향수를 하나는 아기 예수의 이야기를 전설로 치부하자는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의 13번째 제자에 해당하는 기독교를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도 바울의 이

야기를 폄하하고 전설처럼 치부함으로 성경말씀을 부정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

13. 쌍둥이 자매

그루누이가 희생시킨 소녀들 중에 쌍둥이 자매가 나온다. 12명의 소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치환해 놓고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이었는데 그 형제의 순교의 의미를 가장한 쌍둥이 자매의 등장이다.

14. 자두 파는 소녀

원본에는 그루누이가 자두 파는 소녀의 냄새로 인하여 그녀를 희생시켜 본인의 냄새에 대한 욕구를 충족한다. 영화에서는 자두 파는 소녀를 모티프로 사용하여 소녀가 희생된 후에도 4번 등장한다. 앞서 두 작가의 시각 차이 단락에 서술한 것처럼 그루누이 인생에서 끊임 없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소녀를 영화에서 마리아로 치환하고 그루누이를 예수님으로 치환하여 예수님을 인간적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폄하 하고 있다. 론 하워드[17] 감독의 “다빈치 코드”에서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묘사해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서 후손이 있다고 주장하는 맥락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V. 결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중적 의미를 이용하여 기독교의 신성을 폄하하는 영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전망이다. 노골적인 신성모독의 영화보다 교묘하게 영상의 기호적인 특징을 이용하여 관객을 기만하는 영화가 더 더욱 파괴력이 강하다 할 수 있겠다.

이중 의미 분석 결과에 도출 되어 있듯이 티크베어는 영화의 흐름과 특성을 위하여 원전의 이야기를 삭제해 기도하고 새롭게 만들어 넣기도 하였다. 보이지 않는 후각의 이미지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고심한 흔적도 엿보이며 영화 특유의 표현수단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였다. 그러나 영화의 예술적 형상화는 현대 영화언어의 일반적인 수준 안에 정지하고 말았다. 티크베어는 원전이 보여준 예술적 언어들을 영화적 시각화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향수”를 감독하기 이전 작품인 *롤라 런*(1998), *헤븐*(2002)등에서 보여준 경쾌함과 재기발랄함이 소설의 명성이나 거대한 제작규모에 눌러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전의 영화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반 기독교적인 시선이다. 영화의 곳곳에 기호적인 영상을 숨겨 놓고 이중적인 의미로 기독교 교리와 신성을 정면으로 부정하거나 비틀고 있다. 그는 “향수” 이후의 작품인 ‘*사랑해 파리*(2006)’, ‘*인터내셔널*(2009)’, ‘*쓰리*(2010)’에서도 종교적 색채를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유독 “향수”작품에서는 영상 이미지들을 이중적 의미로 치환해 표현하고 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 더 좋은 작품으로 표현 할 수 있음을 현재 정도의 작품에 머물렀는지도 모른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순교를 기독교의 희생양으로 치환하고 소녀들의 희생이 단지 개인의 욕망에 의한 최고의 향수제조에 쓰인 것처럼 순교를 종교의 테두리 안에 초석을 다지는 희생 사건으로 치부하고 있다. 더욱이 신약성경의 절반이상을 기록한 사도바울을 이집트의 전설의 13번째 향수로 치환하여 로르 리쉬의 희생과 동일시하여 그의 순교를 모독하고 있다.

원전에서 그루누이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자두 파는 소녀를 영화에서는 모티프로 사용하여 그루누이의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치환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루누이의 삶 가운데 중요한 순간에 그 소녀를 등장시킴으로서 예수로 치환된 그루누이가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한 살인마의 인격과 동일시 시키는 발칙함을 전개하고 있다.

영화 예술이 지난 한 세기 동안 세계예술의 중심에서 독보적인 예술매체로 발전해 왔다. 그 여정에서 영화는 독창적인 이미지 언어를 발전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편파적인 이데올로기나 종교적 편향에 의한 작품의 전개는 감독의 예술혼을 소멸시키는 암적 존재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http://terms.naver.com/item.nhn>
- [2] 1822.12.24~1888.4.15
영국의 시인이자 비평가이며 교육자. 장학관을 역임하며 영국 교육제도의 개혁에 힘써 근대적인 국민교육의 건설에 크게 공헌하였다. 내성적인 명상 시인으로도 높이 평가 받았으며 10년간 옥스퍼드대학 교수를 지냈다.
- [3] 출생 1967년 11월 15일 (프랑스)
학력 국립고등영화학교
데뷔 1988년 영화 'Photo de famille'
수상 2009년 산세바스티안
2005년 바야돌리드 국제영화제 실버스파이크상
2003년 프랑스 뤼미에르상 최우수 감독상
- [4] 출생 1965년 05월 23일 (독일)
데뷔 *롤라 런* (Lola rennt, 1998)
작품 *헤븐* (Heaven, 2002)
향수 :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Perfume: The Story of a Murderer, 2005)
사랑해, 파리 (Paris, je t'aime, 2006)
인터내셔널 (The International, 2009)
쓰리 (Drei, 2010)
- [5] 파트리크 쥐스킨트 (Patrick Suskind) 소설가
출생 1949년 5월 26일 (독일)
학력 프로방스대학교 역사학, 뮌헨대학교 역사학
수상 독일 시나리오상(1996)
- [6] Peter Zander. Die große Nasenflatter. In: Berliner Morgenpost, 14.09.2006
- [7] 쾨르테는 “소설이 영화화될 수 없기 때문에 향수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화가 소설에 너무 충실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혹평을 가하고 있다. Peter Körte: Immungegen das Böse
- [8] 남완석, “감각의 매체적 형상화” 현대영화연구 제 5권. p88. 2008
- [9] www.literaturkritik.de
- [10] 파트리크 쥐스킨트, 강명순 옮김 *향수,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 열린책들 .2009

